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흑암 중의 큰 빛 (마 4:12-16)

A Great Light in the Darkness (Matt. 4:12-16)

광야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는 세례 요한이 불잡힌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forerunner, 전령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환호했을 때도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하여 왕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얼마 있지 않아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의 비극적이고도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마치 모세의 사명이 광야에서 끝이 난 것처럼,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ime when Jesus defeated temptation and wholeheartedly started His work was just after John the Baptist was put in prison.

John the Baptist was a forerunner, in other words, the messenger. He knew very well who he was, and what he had to do. He urged the people to repent wit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When the people presumed him to maybe be the Messiah and greeted him in expectation, he said that they should see God’s lamb, Agnus Dei, Jesus Christ who is to come and carry the sin of the world.

Then John the Baptist was arrested, because he exposed the corruption of King Herod, which incurred his anger. John the Baptist who was put in prison was beheaded shortly after. Although his tragic and short life made us feel a great sadness, he successfully accomplished his mission as a forerunner of Jesus Christ. As Moses had ended his mission in the desert, so did John the Baptist. Just then Jesus started His mission.

1. 흑암의 땅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구약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땅, 그래서 유대 안에서도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었던, 멸시와 천대의 땅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출세를 원하셨다면, 그리고 어떤 정치적 혹은 종교적 영향력을 끼치려 하셨다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된 땅,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유대에 가지지 않았습니다(요 7:1).

2. 흑암의 땅에 임한 큰 빛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16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일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블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어둠의 땅’을 말합니다.

바로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며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 인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1).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벰전 2:9).

우리 모두 빛의 백성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 The land in the darkness

Jesus started His mission in Galilee as it’s the center of the towns along the coast. The fact that Jesus really began His mission here and along Capernaum was already prophesied by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Since the land in Galilee was isolated and alienated, it was called an alien land that was despised of and treated with contempt even in Judea.

If Jesus had wanted to have a successful career, and use His political and religious influence, He should have gone to Jerusalem. However, Jesus first of all started His mission in Galilee in order to preach the Gospel for those whom were isolated in an isolated land. Moreover, Jesus knew that the Jewish people who were afraid of His existence were trying to kill Him to keep their vested rights. That’s why He didn’t go to Jerusalem (John 7:1).

2. A great light dawned on the land of darkness

“The people liv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v. 16).

‘The peopl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primarily means all mankind. However, more specifically, it explains the land of darkness where the isolated people lived in the land of Zebulun and Naphtali, and the area of Galilee.

A great light dawned on those who lived in the darkness, and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This is the light that saves our spirit and is the light of life that shines on our spirit in order to reveal what is truth and what is not.

“In the past he humb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future he will honor Galilee of the Gentiles, by the way of the sea, along the Jordan—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Is 9:1-2). Isaiah’s prophesy was accomplished by Jesus’ mission and has continued to be accomplished in our lives without ceasing.

My beloved Christians!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the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Pet 2:9).

We all must live not only our lives as a people of light, but also in others as guiding many souls who do not yet know Jesus and wander through the darknes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able to fulfill the mission of light and sal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은 맥추감사절

주일 I · II · III부 예배 - 성찬식 찬양예배 - 교육1국 특별순서

우리교회는 7월 첫 주일이 되는 오늘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봄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다. 유대민족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킨다.

오늘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홍해작전 승전보고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지난 6월6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된 2012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승전보고 순서를 갖는다.

또한 교육부서의 사생대회 결과와 사행시, 육행시의 결과는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2012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마5:13-16, 렘전2:11-12)

2012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 14일(토) 영어예배부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012년 7.27(금)~29(주일)	서울교회	세상을 환하게 반짝아이! 썹~썹~	최인애 전도사
유치부			나는 반짝 아이예요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의 삶이 주께 영광!	김안성 목사
초등부			FOR GOD!	이신우 전도사
중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나를 보내소서! 복음 전하는자의 삶을 축복하소서!	노정호 목사
고등부	7.26(목)~28(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이종진 목사
사랑부	7.14(토)~15(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아자 아자! 소금처럼, 아자 아자! 빛처럼	한상은 목사
대학부	7.18(수)~21(토)	아가페타운	ONE THING	박노철 목사 허승일 전도사
청년1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부르심	박노철 목사 박진아 목사
청년2부	8.15(수)~17(금)	아가페타운	KNOWING GOD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디아스포라	8.2(목)~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박광일 목사
에바다	7.31(화)~8.1(수)	아가페타운	세상의 빛과 소금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8.14(화)~15(수)	아가페타운	빛과 소금된 가정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7.13(금)~14(토)	아가페타운	COMING TOGETHER AND CRYING OUT	박노철 목사 스티븐 마틴놀리치 목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4]

(문 49) 출17:9과 24:13에서 이미 여호수아로 명명된 이를 민수기13:16에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했다 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 출애굽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후기에 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모세에 의해 시작되었을 때부터 여호수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여호와는 구원이다)는 호세아(구원)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 yasa에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 50) 가나안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면(민13:27)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 곳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민13:32)이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답) : 민13:32에 언급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궁핍이 가득한 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풍부한 강수량과 평화가 없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모세5경, 여호수아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등에서 13번 이상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13:32 말씀과 같이 전쟁과 기근이 많은 가나안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민13:27) 가나안은 둘 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신앙의 눈과 불신앙의 눈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였을 뿐입니다.

(문 51)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중 어른들은 모두 죽었다면 그들의 무덤으로 그 땅은 모두 덮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 :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정된 그리고 정돈된 무덤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모래나 자갈로 무덤을 만들어 시체를 오래 보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짐승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뼈를 지어 다니는 광야에서 고고학적 유물로 남길만한 무덤의 흔적은 찾아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맥추감사절 麥秋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킨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킨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온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이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킨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자. (편집부)

홍해작전

홍해를 건너 회복과 부흥을 이루자



오광환 장로 (2012 홍해작전 참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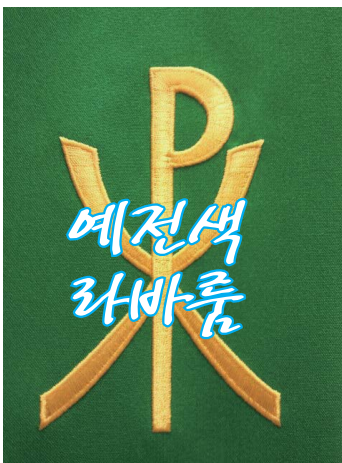
서울교회가 창립 이래 매년 계속되어온 특별 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이 올해는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의 주제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라는 부제로 박노철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서 말씀과, 7가지 기도제목과 각자의 개인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은혜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2012 홍해작전은 예년과 달리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 주력교구와 찬양대 등을 동원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 기도로 준비하며 담임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반전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갓난아이와, 졸린 눈을 비비며 부모손을 잡고 나온 어린학생들, 교회에서 주무시며 새벽을 기

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이웃의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홍해작전에 참여하여 영적전투에 승전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말씀으로 은혜받고, 특별히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단상앞에 나와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을 때 서울교회의 미래부흥을 목도하였으며, 본 홍해작전 기간중에 개인별로 기도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많음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후 바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으로 대접하며, 지하주차장과 교회주위 주차안내로 봉사하신것, 각교회학교 백일장과 4행시, 6행시에 참여하여 홍해를 건너신 분, 기획, 예배, 동원, 홍보, 안내, 오르간반주, 떡잔치 등 각 분야에서 겸손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수고해 주신 홍해작전 참모들, 피택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은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정수길 목사



본당 강대상에는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 드립천이 각각 다른 색깔별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씌어진 PX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PX는 영어 P와 X의 결합이 아니라 헬라이어 크리스트스의 처음 두 문자인 키(X)와 로(P)를 겹쳐 쓴 글자입니다. 이를 '라바룸' (Labarum)이라 부르며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라바룸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재위 A.D. 306-337)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외적인 문제를 감독하도록 임명하신 주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황제', '감독들 중의 감독', 심지어 '13번째 사도'로 까지 칭송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국가를 혼합시킨 장본인', '교회의 타락을 초래한 원흉',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기독교를 이용한 황제'로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당시 로마는 네 명의 황제가 광활한 영토를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이후 로마의 정치권력은 매우 불안정하였고, 4명의 황제 사이에는 치열한 권력다툼이 생겼습니다. 312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서로마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기 전날 밤 꿈에서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음성과 함께, 헬라이어 '그리스도'의 처음 두 문자인 키(X)와 로(P)를 겹쳐 쓴 문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콘스탄티누스는 즉시 병사들에게 모든 방패에 이 문양을 새길 것을 명령하였고, 결과적으로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와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명예의 기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의식의 색깔과 그 의미>



- **흰 색**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사건에 사용되는 예전(禮典) 색. 모든 것의 기본으로서 기쁨, 빛,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 **보라색** : 사순절과 대림절에 사용되는 색. 대림절에는 오시는 왕을 위한 위엄과 존엄을, 사순절에는 청결과 참회를 의미합니다.
- **초록색** : 성령 강림 후 이어진 오순절 이후의 주일과 일반 주일에 사용되는 예전 색. 영적인 성장, 소망, 생결, 생명을 의미합니다.
- **붉은색** : 수난 주간에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길을 의미.

호산나대학생들 '병영체험 가다'

호산나대학, 호산나대학교 학생 106명과 교수 20명은 지난 2012년 6월 21일(목) ~ 6월 22일(금) 1박 2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맹호부대 133대대에서 병영체험에 참여하였다.

이번 병영체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키우는 한편, 학생들로 하여금 한계 극복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인내심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병영체험은 제식 훈련, 전투장비 체험, 경계근무, 유격훈련 등의 다양한 체험과 현역군인들과 함께 불침번, 아침점호 등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학생



들의 훈련은 맹호부대 대대장과 10여명의 교관들이 직접 진행하여 주었다.

병영체험이 더운 날씨 속에서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은 어려움을 통해 국군장병들에 대한 감사함과 스스로의 인내심과 한계에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병영 체험은 지역 군 부대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호산나대학교와 서울교회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2 홍해작전 백일장 시상

그림 그리기

대상 : 교육1국 : 김수민 (유년부), 교육2국 - 고등부 1학년 2반
 금상 : 윤시현 (유치부), 서지희 (유년부), 김은빈 (초등부)
 은상 : 윤주경 (유년부), 오소현 (초등부), 고등부 1학년 1반
 동상 : 정서현 (초등부), 고등부 3학년 2반, 고등부 새가족반
 장려상 : 이수아 (유아부), 김동혁 (유치부), 박세중 (유치부), 백시진 (중등부)
facebook 인증샷 이벤트 : 김은희1, 소윤경, 이성화, 조서현, 한대석, 이주영8, 정진영4, 이의춘, 최유현(사무국에서 상품을 수령)

4 행 시

· **대상 / 강예원 학생**
 회 :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요동치며 홍해가 갈라지고
 복 :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부 : 부지런히 따라오던 이집트군대는 바다에 잠겨 버렸어요
 흥 : 흥겹게 춤추며 승리를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민족이 합려했어야!)

· **금상 / 양원호 집사**
 회 : 회개와 기도로 시작한 2012 홍해작전
 복 : 복음 그 생명의 말씀 에스더 강제로 완전무장
 부 :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새벽을 깨운다
 흥 : 흥분, 놀라움, 기적의 시작 홍해가 갈라지는 소리

· **은상 / 김정숙 집사**
 회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 : 복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니
 부 : 부자도 자기 힘든 천국의 문을 향하여
 흥 : 흥겨운 기도 운동인 홍해작전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 보자!

· **동상 / 윤금자 집사**
 회 : 회중의 찬양소리 어둠을 깨우고
 복 : 복음의 은혜속에 영혼이 눈을 뜨네
 부 : 부활의 울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니
 흥 : 흥하고 망향이 하나님 권세일세

· **장려상 / 장소영 학생 (중등부)**
 회 : 회개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 복된 하루를 홍해작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 :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흥 :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장려상 / 정시현 학생 (중등부)**
 회 : 회전문 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복 : 복음들고 나아가
 부 :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두
 흥 : 흥할 길은 하나님!

· **장려상 / 제연주 학생 (고등부)**
 회 : 회복을 바라며 다 함께 기도하는
 복 : 복된 서울교회 가족들
 부 : 부패한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고
 흥 : 흥겨운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 합니다

6 행 시

· **금상 : 장경원 집사**
 B : Beloved Seoul Church,
 R : Refine ourselves like pure gold through the Holy spirits, which
 I : Influences every area of our lives and
 D : Demonstrates God's love revealed in Christ Jesus so that
 G : Good news, the Life-saving Gospel is proclaimed outside of our visible /invisible Walls and the
 E : Everlasting Grace of God with overflowing Joy will surely follow all the days

· **은상 : 임지윤 성도**
 B : Bringing our hearts together
 R : Raising our voices in adoration
 I : In love and thanksgiving
 D : Delighted in fellowship with one another
 G : Glory Glory to our God
 E : Emmanuel God with us

· **동상 : 전옥주 집사**
 B : Believing in the
 R : Revival of
 I : Inspirational
 D : Devotion to
 G : God and
 E : Eternity

특별찬양

맥추감사절을 기뻐하며 교육1국(국장/홍성주장로)에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감사 찬양을 준비하였다. 유아부(지휘/한문영집사), 유치부(지휘/도지혜성도), 유년부 엔젤스(지휘/유은수,박하나성도), 초등부 글로리아(지휘/양혜선성도), 유초등부 연합찬양대(지휘/유우진성도), 어린이 핸드벨(지휘/김선희집사)등 여섯부서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분리수거를 합시다

5,6,7,8층에 분리수거통이 설치 되었다. 각 부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하절기 위생에 힘쓰기 바란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일(수) 전국장로연합회 제38회 여름수련회 주제해설과 특강을 한다. 5일(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시총회에 참여한다. 7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와 올린바타르 대학 이사회에서 설교를 한다.
- 이갑진 장로 (세계기독교인회 동아시아 부회장), 박우주 권사 중앙아시아 5개국, 러시아, 한국 등 7개국이 모이는 중앙아시아 지역 기독교인대회 주관을 위해 7.3(화)~11(수)까지 키르기스스탄 선교출장
- 주간식당봉사: 엘리아선교회 (7.1) 모세선교회(7.8)
- 금주의식사: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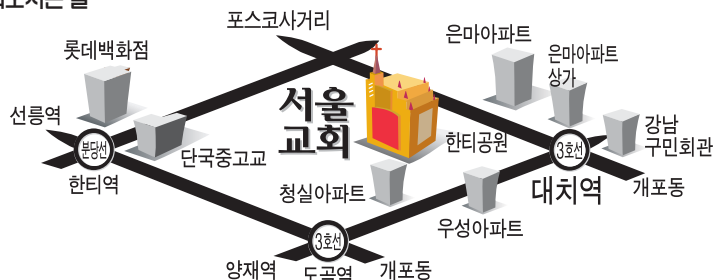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2.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3. 2012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며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